

## 구 가네코 모토사부로 상점

가네코 모토사부로 상점은 이전 점포가 소실된 후 1895 년경에 지어졌습니다. 튼튼한 돌로 된 구조와 방화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지역 상인들과 무역상들이 자신들의 상품을 지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가네코 모토사부로(1869 년~1952 년)는 탁월한 무역상으로 수산물을 수탁 판매했으며, 이후 해운업, 농목장 경영, 그 이외의 분야로도 진출했습니다. 가네코 모토사부로는 1891 년에 초대 오타루 구청장으로 선출되었고, 그 후 국정에도 진출했습니다.

사카이마치 거리에는 건물의 정면에 ‘우다쓰’(방화벽)가 있는 건물이 5 채 있는데, 가네코 모토사부로 상점은 그중 하나입니다. 윗부분이 기와로 덮여 있는 이 돌벽은 건물이 밀집되어 지어진 도시에서 화재가 일어났을 때 다른 건물로 불이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. 건물의 2 층 부분은 상품 보관에 사용되었으며, 창문에는 내화성이 있는 회반죽을 칠한 셔터가 설치되어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. 이 건물은 메이지 시대(1868 년~1912 년)에 오타루에 있던 점포의 전형입니다. 현재, 이 건물은 액세서리 가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